

# 미국인 선교사 자녀들의 한국 연구\*

- 클라런스 워스 2세와 『힐버트의 한국사』(1962)를 중심으로 -

이영미\*\*

## 〈차 례〉

1. 머리말
2. 'MK 한국학자'로의 성장
3. 『한국사』에서 『힐버트의 한국사』로
4. 맺음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에서 성장한 미국인 선교사 후손으로서 한국학자가 된 클라런스 워스 2세 (Clarence N. Weems, Jr., 1907-1996)(이하 '워스')에 관한 연구이다. 워스는 남감리교 선교사 클라런스 워스(Clarence N. Weems, 1875-1952)와 낸시 워스(Nancy A. Weems, 1879-1944)의 둘째 아들로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랐고, 밴더빌트대학교에서 역사학으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은 후 하버드대학교에서 수학하였다. 1942-1947년 미국 정부의 한국 전문가로 미국, 인도, 중국, 한국 등지에서 활동하였고, 1954년 컬럼비아대학교에서 「1881-1898년 한국의 개혁과 독립 운동(The Korean Reform and Independence Movement (1881-1898))」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대표 업적은 호머 힐버트(Homer B. Hulbert, 1863-1949)의 책에 부록을 붙인 『힐버트의 한국사(Hulbert's History of Korea)』(1962)이다.

워스는 한국에 대한 애정에 기반하여 일찍이 한국을 연구할 뜻을 품은 선교사 후손 중 한 사람으로, 서양인들의 전형적 한국관을 거부하고 한국의 역동성, 주체성 및 고유성을 드러낸 'MK(missionary kids) 한국학자'가 되었다. 또한 그는 한국 정부의 제안과 한국 및 여러 나라 역사학자들의 학문적 지원을 받아 『힐버트의 한국사』를 출간하였는데, 이는 19세기 말 '선교사 검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2184).

\*\*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전임연구원

학자(missionary-scholar)'의 연구를 20세기 중후반 'MK 한국학자'가 계승 및 발전시킨 대표적인 사례로서 주목된다.

[주제어] 클라런스 워스 2세, 선교사 후손, 'MK 한국학자', 호머 헐버트, 『헐버트의 한국사』, '선교사 겸 학자'

## 1. 머리말

클라런스 워스 2세(Clarence N. Weems, Jr., 1907-1996)(이하 '워스')는 1909-1940년 한국에서 남감리교 선교사로 활동한 클라런스 워스(Clarence N. Weems, 1875-1952)와 낸시 워스(Nancy A. Weems, 1879-1944)의 둘째 아들이다. 그는 대다수의 미국인 선교사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후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제2차 세계대전기와 전후에는 미국 정부의 한국 전문가로서 미국, 인도, 중국, 한국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또한 그는 미국 대학에서 정식 훈련을 받은 한국학자였다. 그는 19세기 말 한국인들의 개혁과 독립 운동을 연구하여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sup>1)</sup> 1962년에는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 1863-1949)의 1905년 저서 『한국사(The History of Korea)』(전2권)를 검토, 분석 및 보완하여 『헐버트의 한국사(Hulbert's History of Korea)』(전2권)를 출간하였다.<sup>2)</sup>

국내에서 워스에 관한 연구로는 미군정기에 내한하여 직접적으로 한국 정치에 관여한 선교사 후손 두 사람을 다룬 김동선의 논문(2017)이 있다. 김동선은 북감리교 선교사 후손 조지 윌리엄스(George Z. Williams, 1907-1994)가 이승만의 귀국을 건의하고 우익 세력을 지지하였다면, 워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우호적이었고 좌우 합작 및 중간파 노선을 지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한국학자로서의 워스에 관해서는 『헐버트의 한국사』를 출간한 것을

---

1) Clarence N. Weems, Jr., "The Korean Reform and Independence Movement (1881-1898)," PhD. diss., Columbia University, 1954.

2) Clarence Norwood Weems (ed.), *Hulbert's History of Korea*, 2 Vol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and New York: Hilary House Publishers, 1962.

각주에서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다.<sup>3)</sup> 국외에서 워스에 관한 연구로는 로버트 김의 저서(2017)가 있다. 로버트 김은 제2차 세계 대전 때 미국에서 한국 전문가로 활동한 사람들로서 북장로교 선교사 후손 조지 맥쿤(George M. McCune, 1908-1948)과 워스 두 사람을 살폈다. 그는 1942-1947년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워스의 삶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기 때문에, 워스가 어떤 과정을 거쳐 한국학자가 되었는지 어느 정도 다루었다.<sup>4)</sup> 그러나 이 역시 한국학자 워스의 면모를 파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선교사 후손으로서 한국학자가 된 사람들로 해롤드 노블(Harold J. Noble, 1903-1953), 조지 맥쿤, 그의 동생 새넌 맥쿤(Shannon B. McCune, 1913-1993) 등이 있다. 이들에 비하면 워스는 40대 중반에 박사 학위를 받은 늦깎이 한국학자였고 학계에서 오래 활동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 당시 그는 헐버트의 통사적 한국사 서술에 손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인정되었고, 결국 수년간의 연구를 거쳐 원전을 뛰어넘는 『헐버트의 한국사』를 출간하였다. 그러므로 필자는 그를 미국 정보 기관의 한국 전문가(로버트 김)와 한국 사정에 밝은 미군정청의 조연자(김동선) 뿐 아니라 선교사 후손 출신 한국학자 그룹의 일원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선교사 후손 출신 한국학자라는 말이 길고 번거롭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선교사 자녀(missionary kids)의 머릿글자인 MK를 따서 'MK 한국학자'로 칭할 것이다.<sup>5)</sup>

본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앞부분에서는 선행 연구와 필자의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워스의 생애와 한국학자로서의 활동을 소개할 것이다. 아울러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MK 한국학자'들에 관해서도 기술하고자 한다. 뒷부분에서는 워스의 대표 업적인 『헐버트의 한국사』를 검토할 것

3) 김동선, 「미군정기 미국 선교사 2세와 한국 정치 세력의 형성: 윌리엄스(George Zur Williams)와 워스(Clarence N. Weems, Jr.)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1, 2016.

4) Robert S. Kim, *Project Eagle: The American Christians of North Korea in World War II*, Lincoln, Nebraska: Potomac Books, 2017.

5)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선교사 후손보다 선교사 2세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선교사 2세가 간혹 '선교사들의 2세'가 아니라 '2대째 선교사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본 논문에서는 선교사 2세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더불어 missionary kids와 MK는 20세기 후반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제3문화 아이들(Third Culture Kids)'을 규정할 때 사용한 학문적 용어이자 오늘날에도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임을 밝혀둔다.

인데, 이를 위하여 먼저 헐버트의 원전인 『한국사』를 집필 과정부터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헐버트의 한국사』가 출간된 배경과 과정, 『헐버트의 한국사』의 구성, 내용 및 학문적 의의를 구명하겠다.

## 2. ‘MK 한국학자’로의 성장

머리말에서 언급한 대로 워스의 부모는 1909-1940년 한국에서 활동한 남감리교 선교사들이었다. 워스의 부친은 1875년 조지아주 북서쪽 우스타놀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6세부터 아칸소주에서 살면서 1895년 헨드릭스아카데미와 1899년 아칸소대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는 대학에서 만난 아칸소주 출신의 여성 낸시와 1902년 결혼하였고, 프레이리그로브고등학교, 오자크고등학교, 아칸소군사학교, 갤로웨이컬리지 등 아칸소주의 중등 교육 기관들에서 10년 이상 재직하였다.<sup>6)</sup>

워스의 부친은 15세에 남감리교로 개종하여 독실한 신앙 생활을 하던 사람으로, 당시 미국의 많은 청년들이 그랬던 것처럼 대학 시절부터 해외 선교사가 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는 1907년 여름 남감리교 해외선교부에 선교사 지원서를 넣은 후, 스미스그로브훈련학교의 교장이 되어 가족과 함께 켄터키주로 이주하였다. 그는 그곳에서 장로교인들과 감리교인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미국 기성 교회들의 분열과 옹졸함에서 벗어나 해외에서 순수한 신앙 생활을 영위하기를 갈망하게 되었다고 한다.<sup>7)</sup> 마침내 워스 부부는 아칸소주에서 낳은 두 아들을 데리고 1909년 9월

6) 내한선교사사전 편찬위원회 편, 『내한선교사사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2, 944-945쪽. 단, 워스의 부모가 아칸소주립대학교(Arkansas State University)를 졸업하였다는 내용은 오류이다. 그들의 모교는 1909년 개교한 아칸소주립대학교가 아니라 1871년 아칸소산업대학교로 개교한 아칸소대학교(University of Arkansas)였다.

7) Robert S. Kim, op. cit., p. 61. 당시 스미스그로브는 기차역, 우체국, 학교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기관들이 장로교인 전용과 감리교인 전용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감리교인이었던 워스의 부친은 학교를 결석하고 거짓말을 한 남학생을 훈육하였다가, 장로교인이었던 그의 아버지에게 신체적 공격을 당한 데 이어 장로교인 부모를 둔 학생들이 단체로 학교를 그만두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였다.

18일 한국 땅을 밟았다. 1907년 5월 28일 태어난 워스는 2세, 그의 형 데이빗 워스(David A. Weems, 1904-1987)는 5세였다.

한국에 온 미국인 선교사들의 자녀들은 한국에서 자라다가 10대 중반이 되면 미국에 가서 대학 교육을 받는 것이 보통이었다. 워스는 그의 부모가 개성에 부임함에 따라 개성에서 자랐고, 1923년 여름 16세의 나이에 한국을 떠나 형 데이빗이 있던 미국 아칸소주 콘웨이에 도착하였다. 데이빗은 1921년 부친의 모교이자 남감리교 관련 학교인 헨드릭스아카데미를 졸업한 후, 목사의 꿈을 안고 헨드릭스컬리지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1925년 헨드릭스컬리지를 졸업한 후 아칸소주에서 목회를 하였고, 이듬해 조지아주로 이주하여 에모리대학교의 종교 교육 석사 과정에 진학하는 한편 해외 선교를 결심하였다. 1928-1930년 예일대학교 학부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박사 과정에 들어가려고 하던 때, 그는 부모의 뒤를 이어 한국 선교사로 임명되었다.<sup>8)</sup>

워스는 형과 마찬가지로 헨드릭스아카데미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후 테네시주에 소재한 밴더빌트대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는 역사학을 공부하여 1930년 학사 학위를 받았고, 곧바로 석사 과정에 진학하여 1933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학위 논문은 미국사나 유럽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한국 획득: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부터 1910년 일본의 한국 병합까지 (Japan's Acquisition of Korea from the Treaty of Shimonoseki (1895) to the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1910)」였다. 미국에서 2년, 한국에서 14년을 살고 1923년부터는 다시 미국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자신이 성장기를 보내고 정체성을 형성한, 사실상 고향이나 다름없는 한국을 향하고 있었다.

선교사 자녀로 태어나 미국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하면서 한국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워스만이 아니었다. 북감리교 선교사 후손인 해롤드 노블

8) 데이빗 워스는 1931년 내한하여 철원에 배치되었다. 그는 아내의 신경 쇠약으로 1933년 3월 미국에 돌아갔다가 1935-1937년 다시 한국 파견을 요청하였으나, 남감리교 해외선교부는 재정 부족, 아내의 건강, 미일 관계의 악화 등을 들어 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그는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뉴욕에서 목회에 종사하였다(내한선교사사건 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947쪽).

은 「1895년 이전 한국과 한미 관계(Korea and Her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before 1895)」로 1931년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오리건대학교 조교수가 되었다.<sup>9)</sup> 또 다른 북감리교 선교사 후손인 에블린 베커(Evelyn M. Becker, 1907-2012)는 캘리포니아대학교 4학년 재학 시절 한국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932년 가을 한국사를 전공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대학교 석사 과정에 진학하였다. 북장로교 선교사 후손으로 베커와 결혼한 조지 맥쿤은 1934년 옥시덴털대학교에서 한국사 연구자가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였다.<sup>10)</sup>

1933년 밴더빌트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워스는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주요 원인은 대공황이 워스의 부모에게 안긴 경제적 타격이었다. 그들은 1932-1933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 선교사 급여의 35%를 삭감당하였고, 은퇴 자금과 아들 넷의 교육을 위하여 은행에 저축해 두었던 약 10,000달러를 잃었다. 워스의 부친은 얼마나 절실하였던지 한국 선교사로 와 있던 장남 데이빗에게 환투기를 시켰다. 데이빗은 베이징에 가서 400달러를 4,800엔으로 환전하였고, 한국에 돌아와 그것을 원금의 3배인 1,200달러로 재환전하였다.<sup>11)</sup>

상황이 이러하였으므로 워스는 공부와 일을 병행해야 했다. 그는 일단 워싱턴 D.C.로 가서 정부 기관의 타이피스트로 잠깐 일한 후, 1933년 가을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시작하되 낮에는 지역 사업체에서 인력 관리

9) 노블에 관해서는 이영미, 「미국 최초의 한국사 전공자 해롤드 노블(Harold J. Noble, 1903-1953)의 생애와 한국 연구」, 『한국학연구』 64, 2022를 참고할 것.

10) 베커는 맥쿤과 결혼하면서 학업을 중단하였다. 그녀는 1948년 말 남편과 사별한 후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학업을 재개하여 1950년 「주변 한국 부족들의 중국 제도 채택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본 낙랑의 역사(History of Lo-lang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Ways in Which Chinese Institutions Were Adopted by Surrounding Korean Tribes)」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1950-1960년대에 한국학자로 활동하였으며 박사 학위는 받지 않았다.

11) Robert S. Kim, op. cit., p. 64. 한국에서 활동한 미국인 선교사들은 각자가 속한 교단 해외선교부로부터 급여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였다. 1880년대 중반에 내한한 기혼 선교사들은 연 1,200달러와 자녀 수당을 받았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1930년대 워스의 부모가 받은 급여는 그보다 많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0,000달러는 대략 5년치 연봉에 맞먹는 거금이었을 것이다.

자로 일하고 저녁에는 수업을 들었다. 그의 주경야독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1년 만에 공부를 중단하고 생업에 종사하다가 1935년 제니 리건(Jennie D. Ligon, 1907-1962)과 결혼하였고, 이듬해 하버드대학교에 복귀하여 학위 논문을 쓰기 시작하였으나 이번에도 1년 만에 그만두었다.<sup>12)</sup> 이후 그는 고향인 아칸소주로 이사하였다. 1940년 4월 4일에 기록된 인구조사서에 따르면 그는 아칸소주 제퍼슨에서 아내 및 아들 윌리엄 웨임스(William S. Weems, 1939-1993)와 살면서 공익 기업의 인력 감독으로 연 3,600달러를 벌고 있었다.<sup>13)</sup> 1941년 그는 또 다시 아칸소주 남쪽에 접한 루이지애나주 슈리브포트로 이사하였고, 석유 및 가스 산업과 관련된 제조업체 베어드 코퍼레이션(J. P. Beard Corporation)의 인력 감독관이 되었다.<sup>14)</sup>

웨임스가 학업을 포기하고 평범하게 사는 동안 그보다 한 살 어린 맥쿤은 한국학자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는 1935년 옥시덴탈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노블의 뒤를 이어 캘리포니아대학교 박사 과정에 입학하였고, 1938년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인 맥쿤라이샤워표기법을 만들었으며, 옥시덴탈대학교에 재직 중이던 1941년 「1800-1864년 한중 및 한일 관계(Korean Relations with China and Japan, 1800-1864)」로써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이 하와이 진주만을 침략하였다. 미국은 일본과 맞서 싸우기 위하여 일본에 정통한 사람들은 물론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대일전에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도 찾기 시작하였다. 일본어를 할 줄 알았던 노블은 전자에 포함되었다. 그는 1942년 6월 오리건대학교 동료 교수 1명과 함께 동원되어 샌디에이고의 캠프 엘리엇에서 해병대 제2사단을 위한 일본어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해병대 사병들을 위한 3개월 코스의 일본어 학교도 설립하였다. 이후에는 해외 교전 지역에서

12) 훗날 웨임스가 한 국무부 인사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그가 준비하던 논문의 제목은 「일본이 한국과 만주에서 취한 조치의 국제적 양상 비교(Comparative International Aspects of Japan's Action in Korea and Manchuria)」였다([https://db.history.go.kr/common/imageViewer.do?levelId=ps\\_001\\_0050](https://db.history.go.kr/common/imageViewer.do?levelId=ps_001_0050)).

13) <https://www.familysearch.org/ark:/61903/3:1:3QSQ-G9M1-NWVZ?view=index&personArk=%2Fark%3A%2F61903%2F1%3A1%3AKQK3-S3K&action=view>.

14) Robert S. Kim, op. cit., p. 68.

복무하면서 “뛰어난 용기와 헌신적인 임무 수행”으로 표창도 받았다.<sup>15)</sup> 맥 쿤은 후자였다. 그는 1941년 12월 정보조정국(Office of the Coordinator of Information: COI) 극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미국에 있는 한국인 독립 운동가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1942년 초 옥시덴털대학교에 휴가를 낸 후 정보조정국에서 사회과학분석관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몇 달 후인 6월 13일 정보조정국은 전략사무국(Office of Strategic Services: OSS)으로 개편되었고, 그는 약 2년간 이 기관에 몸담으면서 한국인들을 대일전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sup>16)</sup>

웬스는 맥쿤과 비슷한 시기인 1942년 초 워싱턴에 도착하였다. 그는 맥쿤 처럼 정부 기관의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 정보부에서 봉사할 것을 자원하였다고 한다. 그의 동생들도 각자의 재능을 살려 전쟁에 참여하였다. 1937년부터 조지아공과대학교에 재직 중이던 큰동생 윌리엄 웬스(William R. Weems, 1911-2023)는 1941년 7월 육군 항공대 장교로 입대하였고, 1939-1940년 서울외국인학교 교장으로 일한 작은동생 벤저민 웬스(Benjamin B. Weems, 1914-1986)는 육군 정보부에서 어학 능력을 발휘하였다.

태평양 전쟁은 수년간 한국과 무관하게 살던 웬스에게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그는 한국에서 14년을 살고 한국을 연구하여 석사 학위까지 받은 사람으로서, 한국에 관한 정보를 습득 및 조직화하는 데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그는 1942년 7월 민간인 신분을 벗고 육군 항공대 중위로 임관하였고, 몇 달간의 훈련을 거친 뒤 이듬해 1월 샌프란시스코에 발령을 받았다. 그리고 3월 8일에는 그의 경력을 눈여겨 본 전략사무국에 공식적으로 합류하였다. 맥쿤이 본국에서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한국 전문가였다

15) Harold Joyce Noble, *Embassy at War, Edited with an Introduction by Frank Baldwin*, Seattle &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5, p. vi; James C. McNaughton, *Nisei Linguists: Japanese Americans in the 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during World War II*,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2006, p. 160.

16) 태평양전쟁기 맥쿤의 활동상에 관해서는 김서연, 「조지 맥쿤(George M. McCune)의 생애와 한국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4장을 참고할 것.

면, 워스는 해외에 파견될 한국 전문가였다. 워스는 1942년 워싱턴에서 처음 맥쿤을 만난 것으로 보이며, 그와 교류하는 가운데 그의 맥쿤라이샤워표 기법 수정 작업을 돕기도 했다.<sup>17)</sup>

워스는 전략사무국 샌프란시스코 지부에 근무하다가 1943년 10월 뉴델리 지부로 발령을 받았다. 그는 뉴델리에 있는 동안 전략사무국의 첫 해외 조직인 101 분견대의 작전을 지원하였고, 1944년 4월에는 중국에 파견되어 중국 제14공군의 기존 정보 조직을 보완하는 일을 맡았다. 이후 중국에 계속 머무르면서 한국 관련 수석 정보분석관으로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을 담당하였고, 한국광복군 3지대장 김학규와 함께 한국에 침투할 요원들을 선발 및 훈련시키는 일에 참여하였다.<sup>18)</sup>

해방 후 미군정청은 선교사들과 선교사 후손들의 도움을 받아 군정을 실시하였다. 워스는 제2대 군정 장관 아처 러취(Archer L. Lerch, 1894-1947)의 보좌관으로 1946년 초 내한하였다. 그는 김구, 김규식, 여운형 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미군정청의 중간과 육성 정책에 참여하였고, 사령관 존 하지(John R. Hodge, 1893-1963)의 비공식적인 지시에 따라 미국에 가서 서재필의 귀국을 중용하였다. 또한 1946년 12월 김규식을 의장으로 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설립되자, 그는 이듬해 1월 입법의원을 조정 및 감독하는 연락위원회의 정치사의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입법의원은 미군정청의 의도와는 달리 중간과의 위상을 축소시키고 우익의 세력 기반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1947년 하반기에 여운형이 암살되었고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결렬되었으며 한국 문제는 국제연합으로 이관되었다.<sup>19)</sup>

워스는 1947년 9월 5일 서울을 떠났고 18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였다.<sup>20)</sup> 김동선은 그가 좌우 합작 운동의 실패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10월 하순쯤 한국을 떠났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는데, 그의 입지가 좁아진 것은 사실이였겠지만 개인적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

17) 김서연, 앞의 글, 22쪽.

18) 전략사무국 시절 워스의 활동상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로버트 김의 저서를 참고할 것.

19) 군정 장관 보좌관 시절 워스의 활동상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동선의 논문을 참고할 것.

20) <https://search.i815.or.kr/sojang/read.do?isTotalSearch=Y&doc=&adminId=1-B00544-023>.

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문제 모두에 너무 정신이 팔렸던 것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sup>21)</sup> 서울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 존 웨임스(Jon J. Weems)가 6월 1일 사망한 것이 그것이었을 것이다. 그와 아내 제니는 이 일로 힘든 시기를 보냈고 미국에 돌아간 후 결국 이혼하였다.

미국으로 돌아간 지 1년 만인 1948년 9월, 웨임스는 무려 11년 만에 학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7월 29일 서재필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이번 여름에 저는 한국에 관한 제 책을 풀타임으로 쓸 수 있게 되었고,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9월부터 약 2년간, 다시 말하면 필요한 시간만큼 하버드대학교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공군 민간 기관 프로그램(Air Force Civilian Institutions Program)이 장교인 저를 그곳에 배치한 것입니다. 이는 매우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당신과 저는 다음 국제적 위기가 발생할 때까지 제가 군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이 일로 저는 군에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일은 국제 관계 문제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넓힐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박사 학위가 제공하는 모든 학문적 인정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게 주었습니다.<sup>22)</sup>

웨임스는 1948년 9월 하버드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였다. 석사 과정 때 1895-1910년 일본의 한국 장악 과정을 연구하였고, 박사 과정에서는 일본의 한국 통치와 만주 통치를 비교하려고 했다(각주 12 참조). 그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이번에도 학업을 마치지 못했고, 1954년 6월 컬럼비아 대학교 정치학과에 전혀 다른 내용의, 심지어 상당한 분량의 학위 논문을 제출하여 44세의 나이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논문 제목은 「1881-1898년 한국의 개혁과 독립 운동(The Korean Reform and Independence Movement (1881-1898))」이고 세부 장절을 제외한 대략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21) <https://search.i815.or.kr/sojang/read.do?isTotalSearch=Y&doc=&adminId=1-B00544-022>.

22) <https://search.i815.or.kr/sojang/read.do?isTotalSearch=Y&doc=&adminId=1-B00414-036>.

[표-1] 워스의 학위 논문 목차(세부 장절 제외)

서론	한국의 문화적 토대	1-17쪽
제1부	일본의 지원을 받은 근대화론자들과 동학당의 개혁 노력	18-136쪽
	1. 1881-1884년 개화독립당과 갑신정변	18-67쪽
	2. 어둠의 10년(1885-1894)과 동학의 봉기	68-103쪽
	3. 박영효와 1894-1895년 갑오개혁	104-136쪽
제2부	서재필과 윤치호, 그리고 1896-1898년 독립 프로그램	137-506쪽
	4. 프로그램의 배경, 목적, 주요 인물들	137-198쪽
	5. 서재필 및 윤치호의 메시지 내용	199-276쪽
	6. 진보의 19개월 동안 독립 프로그램의 실행	277-359쪽
	7. 예상하지 못했던 압력 아래 독립 프로그램의 실행	360-506쪽
요약과 결론		507-529쪽
참고 자료		530-546쪽

워스는 1930년대 초 밴더빌트대학교 시절부터 한국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의 연구 대상은 한국보다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행위였다. 그러나 20여 년 후에 나온 그의 학위 논문은 제목과 목차만 보더라도 그가 시선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특히 19세기 말 한국의 개혁가들과 그들의 노력에 돌렸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그는 『독립신문』, 배재학당 강연회, 독립협회, 협성회, 광무협회, 만민공동회 등을 아우르는 ‘독립 프로그램(Independence Program)’을 높이 평가하였다.<sup>23)</sup> 노블이나 맥쿤과 달리, 워스는 자신이 이 주제를 선택한 배경이나 계기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추론해 보자면 전락사무국 시절과 해방 후 여러 한국인 활동가들과 직간접적으로 교류한 것이 그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 같다. 또한 그가 ‘독립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핀 것은 1946년 이후 서재필과 가깝게 지낸 것, 1951년 서재필이 사망한 것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그렇다고 그가 서재필에 관하여 긍정적인 내용만 쓴 것은 아니다. 그는 서재필이 성실성, 상상력, 조직 및 홍보 능력, 추진력 등의 장점을 가졌지만, 독립 프로그램의 실행에 필요한 은유와 관용은 없었다고 평가하였다.<sup>24)</sup>

23) Clarence N. Weems, Jr., *op. cit.*, p. 136.

24) *Ibid.*, p. 521.

한편 워스는 서구화를 기조로 한 개혁이 아닌 동학 운동에도 관심을 보였다. 그리하여 동학이 최고신 개념과 불교, 유교 및 도교의 요소를 적절히 사용한 전형적인 한국 종교인 동시에, 도덕을 통하여 억압적인 행정 관행을 시정하고 한국 정부의 전통을 회복시키려는 아래로부터의 요구였다고 평가하였다.<sup>25)</sup> 동학에 관한 그의 관심은 동생 벤저민에게도 이어졌다. 벤저민은 그의 도움을 받아 1955년 조지타운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아시아학협회(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논문 총서 제15권으로 『개혁, 반란, 천도(Reform, Rebellion and the Heavenly Way)』를 출간하였다.<sup>26)</sup>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워스의 삶에 관해서는 정보가 매우 적다. 1954년 말 클라라 카르보나라(Clara L. Carbonara, 1926-2006)와 재혼하였고, 1960년 소책자 『한국: 어느 저개발국의 딜레마(Korea: Dilemma of an Underdeveloped Country)』를 출간하였고,<sup>27)</sup> 1962년에는 수년간의 연구 성과인 『헐버트의 한국사』를 출간하였다. 줄곧 동부에 살면서 페얼리디킨슨대학교, 맨스필드대학교, 조지워싱턴대학교, 뉴욕대학교 등에 몸담았으며, 1960년대 중반 이후로는 학계에서의 행적을 찾기 어렵다. 1967년에 60세가 되었으니 은퇴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96년 8월 18일 뉴저지주 시더그로브에서 89세로 사망하였다.

워스는 한국에 대한 강한 애착으로 일찍이 한국을 연구할 뜻을 품었던 선교사 후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경제적인 문제와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부를 단념하였으나, 태평양 전쟁의 발발과 함께 한국 전문가로서 한국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자신의 소임을 다한 후에는 한국을 깊이 연구하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그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일제 강점 전 한국에 관심을 가졌고, 조국의 개혁과 독립을 위하여 각자의 방법으로 헌신한 개화당, 동학도, 독립협회를 연구하

25) Clarence N. Weems, Jr., op. cit., pp. 511-512.

26) Benjamin B. Weems, *Reform, Rebellion and the Heavenly Way*, Tucson, Arizona: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64.

27) Clarence N. Weems, *Korea: Dilemma of an Underdeveloped Country*, New York: Foreign Policy Association, World Affairs Center, 1960.

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서양인들의 전형적 한국관을 거부하고 한국의 역동성, 주체성 및 고유성을 드러낸 ‘MK 한국학자’들 — 노블, 맥쿤, 맥쿤 부인 등 — 과 맥을 같이하였다.<sup>28)</sup>

### 3. 『한국사』와 『헐버트의 한국사』

#### 1) 헐버트와 『한국사』

1886년 여름 육영공원 교사 3인 중 한 명으로서 한국에 온 호머 헐버트는 이듬해 한국인 어학 교사의 도움으로 『東史纂要』를 접하였다. 『동사찬요』는 1606년 오운이 편찬하고 1609년 8권 8책으로 간행한 역사서로, 선조가 유성룡을 통하여 이 책을 본 후 유럽의 표준이라며 칭찬하였다고 한다. 헐버트는 한문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이 영어를 가르쳐 준 어학 교사의 풀이에 의존해야 했지만, “알리바바의 동굴을 우연히 발견한 보이 스카우트 같았다”고 술회할 만큼 한국사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sup>29)</sup>

헐버트는 5년간의 교사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여 자형이 설립한 퍼트넬군 사학교에서 교사 및 교장으로 일하다가, 북감리교 한국선교부의 권유에 응하여 1893년 10월 북감리교 선교사로 다시 한국에 왔다. 그는 삼문출판사(Trilingual Press)의 책임자로서 문서 출판을 총괄하였고, 1895년 복간된 『코리안 리포지터리(The Korean Repository)』에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에 관한 글을 다수 게재하면서 ‘선교사 겸 학자(missionary-scholar)’로 성

28) 맥쿤은 사대교린의 본질을 규명함으로써 조선이 중국과 일본 모두에 대하여 약자였다는 서양인들의 일반적 인식을 수정하였다. 맥쿤 부인은 1951년 캘리포니아대학교에 제출한 석사 학위 논문에서 고대 평양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한국 문화는 중국 문화와 다를 바 없다는 서구 학계의 통설에 반박하였다. 노블은 연구 주제의 특성상 직접적으로 한국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지는 않았으나, 자신이 나고 자란 땅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착과 미국의 대한국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사학과에서 공부한 이 3인에 관해서는 2024년 12월 출간 예정인 필자의 다른 논문에서 다루었다.

29) Homer B. Hulbert, 『Echoes of the Orient: A Memoir of Life in the Far East』, 선인, 2000, 61-62쪽.

장하였다.<sup>30)</sup>

1897년 5월 헐버트는 조선 정부의 제의를 받아들여 선교사 생활을 마감하고 한성사범학교 교관이 되었다. 그는 『코리안 리포지터리』에 초보적인 연구 성과를 계속 발표하면서 ‘선교사 겸 학자’의 행보를 이어나갔다. 또한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한국사』를 쓰기 시작하여, 몽골의 고려 침략과 고려인들의 항쟁을 다룬 부분(『한국사』 제1권의 185-260쪽)을 요약한 「한국에서의 몽골인들(The Mongols in Korea)」을 1898년 4-6월 연재하였다. 『코리안 리포지터리』 1898년 9월호에는 그가 『한국사』의 상당 부분을 썼고 조만간 탈고할 계획이었음을 암시하는 다음과 같은 언급도 있다.

헐버트 교수와 그의 가족이 미국에서 6개월간 짧은 휴가를 보내기 위하여 서울을 떠났다. 즐거운 여행 되시기를. 편집진은 오래전에 약속된 『한국사(History of Korea)』가 이제 실현될 줄 믿는다.<sup>31)</sup>

흥미로운 사실은 헐버트가 『한국사』를 곧바로 단행본으로 출간하지 않고 1901년 자신이 창간한 월간지 『코리아 리뷰(The Korea Review)』에 연재하였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순서는 연재를 마친 후 연재물을 정리하여 책을 내는 것이지만, 그의 경우는 거꾸로여서 인쇄가 끝난 책을 기계적으로 분할하여 1901년 1월부터 1904년 12월까지 총 48회 연재하였고, 1905년 삼문출판사의 후신인 감리교출판사에서 두 권짜리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헐버트가 『한국사』를 곧바로 출간하지 않고 『코리아 리뷰』에 연재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의 회고록에는 “일반 대중에게 내놓는 최초의 한국 통사이기 때문에 잡지에 연재하는 것이 적절해 보였다”라고만 되어 있다.<sup>32)</sup> 일단 연재물과 단행본을 비교해 볼 때 독자들의 조언을 받아 글을 수정하려던 것

30) 헐버트를 포함한 ‘선교사 겸 학자’들에 관해서는 이영미, 「한국을 연구한 초기 개신교 ‘선교사 겸 학자’들」, 『한국기독교와 역사』 54, 2021을 참고할 것.

31) H. G. Appenzeller & G. H. Jones (eds.), “Notes and Comments,” *The Korean Repository*, Volume V (January-December, 1898), Seoul: The Trilingual Press, p. 355.

32) Homer B. Hulbert, 앞의 책, 225쪽.

은 아닌 것 같다. 워스는 헐버트가 일단 초안을 연재하여 동아시아 학자들의 피드백을 받은 후 자신의 글을 재고 및 수정하여 대중에 공개하였다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며, 그에게 그런 의도가 없었음을 아쉽게 여겼다.<sup>33)</sup>

헐버트가 단행본 출간을 미룬 이유는 그가 직접 밝히지 않은 이상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그가 원고를 서랍 속에 묵혀두지 않고 연재한 것은 새로 시작한 월간지 『코리아 리뷰』를 위해서였음이 분명해 보인다. 『코리아 리뷰』는 북감리교 한국선교부가 발행한 『코리안 리포지터리』와는 달리 철저하게 헐버트 개인의 매체였다. 그는 한국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매체를 희망하였으나, 실제로는 외부 기고가 매우 적어 편집과 운영은 물론 집필도 거의 다 그의 몫이었다.<sup>34)</sup>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써 놓은 양질의 글을 연재하는 것만큼 그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있었을까? 『한국사』를 출간하는 대신 16쪽 분량으로 연재한 것은 매달 40쪽짜리 월간지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정리하면 헐버트는 1900년까지 쓴 내용만으로 『한국사』를 출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코리아 리뷰』를 안정적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단행본 출간 대신 1901년 1월 연재를 시작하였고, 1904년에는 1900-1904년의 한국 정세를 다룬 수십 쪽을 추가 집필하여 그해 연말까지 연재하였다. 그가 1904년 12월 연재를 끝낸 것은 그달을 끝으로 『코리아 리뷰』를 정간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독자들의 호소에 따라 정간 계획은 취소되었으나, 연재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1905년 단행본 출간으로 이어졌다.

『한국사』는 서양인이 한국 역사서를 기본 자료로 삼아 쓴 최초의 한국 통사였다. 헐버트는 한국에 호의적이라고는 해도 외국인이었다고 게다가 한문도 몰랐지만, 정부에 고용된 교육자로서 신분이 확실하였기 때문에 어학 교사를 비롯한 여러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아 이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단행본 머리말에서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는 『東史綱

33) Clarence Norwood Weems (ed.), *Hulbert's History of Korea*, Vol. I, p. ED14.

34) 이영미, 「영문 잡지 『코리아 리뷰』(The Korea Review) (1901-1906) 연구」, 『역사민속학』 60, 2021, 150-152쪽.

『要』, 조선 시대 서술을 위해서는 공식 기록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개인이 소유한 필사본을 참고하였다고 밝혔는데, 이는 그가 한국인 조력자들의 번역 지원을 받아 간접적으로 한국 사료에 접근하였다는 뜻일 터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대한 내용을 소화하여 영문으로 기록한 주체는 헐버트이니, 헐버트가 이 책의 유일한 저자임은 부인할 수 없다.

헐버트는 한국 사료에 근거하여 상세하고 풍성하게 한국 역사를 서술하였다. 『한국사』는 제1권이 409쪽, 제2권이 398쪽으로 총 분량이 807쪽이나 되었고, 분량을 늘리기 위하여 한국 역사가 아닌 내용을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또한 그는 서양식 시대 구분을 시도하여 고조선부터 후삼국의 성립 전까지를 고대 한국(ancient Korea), 후삼국의 성립부터 고려 왕조의 멸망까지를 중세 한국(medieval Korea), 조선 왕조의 개창 이후 1904년 말까지를 근대 한국(modern Korea)으로 설정하였다. 고대와 중세는 모두 13개 장, 분량은 각각 126쪽과 167쪽으로 비슷하게 다루었으며, 근대는 왕조 개창부터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말까지를 9개 장(제1권의 295-409쪽), 조명 연합군의 평양성 수복부터 서양 세력과의 충돌이 일어난 1866년까지를 15개 장(제2권의 1-215쪽), 일본의 조선 개항 시도가 시작된 1870년대 초부터 1904년 말까지를 13개 장(215-374쪽) 등 훨씬 많은 지면을 들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한국사』의 내용은 장재용의 연구에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요약하면 먼저 고대사의 경우, 헐버트는 단군 조선을 민족의 기원으로 상정하고 기자 조선을 문명의 출발로 높이 평가하였으며, 고조선이 중국에 복속되지 않은 독립국이었다고 확신하였다. 고조선 이후 고대 국가들의 출현과 관련해서는 고조선의 북방 계통과 삼한의 남방 계통이 달랐음을 명시하였고, 삼국 중 신라에 대하여 우호적 시각을 견지하였다. 고려 시대와 관련해서는 일단 경쟁자들을 너그럽이 포용한 왕조 개창자를 칭송하였고, 군주별로 정치사와 문화사를 상세하게 서술하되 불교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고려 왕조의 몰락을 당연시하였다.<sup>35)</sup>

장재용이 지적한 것과 같이, 헐버트의 고대사 및 고려시대사 서술 및 인식

은 조선 유학자들의 그것과 비슷한데, 이는 그가 참고한 역사서 『동사강요』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동사강요』에 관한 소개는 『한국사』 연재물에 나온다. 그에 따르면 『東國通鑑』, 앞에서 언급한 『동사찬요』, 『東史會綱』, 『東史補遺』를 비교하여 19세기 초에 편찬된 책이라고 한다. 저자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sup>35)</sup> 이 책에 관해서는 후술하겠다.

다음으로 조선 시대와 관련하여, 헐버트는 고려 시대와 마찬가지로 연대기적 서술 방식을 취하였다. 그는 조선 전기는 국가 정비 사업과 문화적 역량 축적에 성공한 시대, 반면 조선 후기는 당쟁, 천주교 탄압, 서구 세력의 침략 등 혼란의 시대로 기술하였다. 또한 고종 즉위 전을 다룬 24개 장 중 10장을 임진왜란, 약 4장을 병조호란에 할애하였다. 고종 즉위 이후에 관해서는 역사가가 없으므로 인물들의 증언과 목격을 활용하였고, 1886년 이후로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일들도 기록하되 적극적인 해석보다는 객관적 기술을 중시하였다.<sup>37)</sup>

『한국사』는 1905년 간행 후 20세기 전반 서구인들이 참고할 수 있었던 유일무이한 한국사 개설서로 기능하였다. 한국에 일반적인 관심을 가진 독자들이라면 이 책보다는 헐버트의 또 다른 책 『한국의 멸망(Passing of Korea)』(1906)을 선호하였겠지만, 한국 역사를 진지하게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외없이 이 책을 읽어야 했다. 노블, 맥쿤, 맥쿤 부인 등이 무렵에 학위를 받은 ‘MK 한국학자’들의 자료 목록에는 항상 『한국사』가 있었고, 1954년 워스의 학위 논문에도 이 책이 사용되었다. 요컨대 헐버트의 『한국사』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전반 서양인들이 쓴 모든 한국 관련 저술을 통틀어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사 개설서였다.

35) 장재용, 「근대 서양인의 저술에 나타난 한국사 인식」,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41-145쪽.  
 36) Homer B. Hulbert, “The History of Korea,” *The Korea Review*. Volume I, Seoul: The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1, p. 30. 『한국사』는 단행본과 연재물 모두에 한자가 쓰이지 않았다. 이 역사서들의 제목도 Tong-sa Kang-yo, Tong-guk Tong-gam, Tong-sa Chan-yo, Tong-sa Whe-gang, Tong-sa Po-yu와 같이 로마자로만 기록되었다.  
 37) 장재용, 앞의 글, 146-149쪽.

## 2) 워스와 『헐버트의 한국사』

워스는 페얼리디킨슨대학교에 재직 중이던 1956년 후반 “헐버트 교수의 저서를 되살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제안”을 받았다.<sup>38)</sup> 이 제안은 한국 정부로부터 나왔다. 『한국사』 자체가 지니는 의미는 차치하고라도, 헐버트가 을사조약 이후 일제강점기가 끝날 때까지 한국의 독립을 옹호한 점, 1949년 국빈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가 사망하여 한국에 묻힌 점, 이듬해 한국 정부로부터 외국인 최초로 건국공로훈장 태극장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일이다. 문제는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였는데, 1957년 5월 17일 프란체스카 영부인이 이승만 대통령의 친구 로버트 올리버(Robert T. Oliver, 1909-2000)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헐버트 교수의 권위 있는 책인 『한국사』를 재출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생각입니다. 대통령은 당신이 이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그는 새로운 책의 서문과 머리말을 써 달라고 당신에게 제안할 생각이 있습니다. 정오표 목록도 필요하겠지요. 우리는 당신이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역사자들 중 한 사람에게 수정을 맡길 것입니다.<sup>39)</sup>

위 편지는 이승만이 올리버에게 『한국사』를 맡길 뜻이 있었음을 잘 보여 준다. 그러나 올리버는 한국 역사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언론학과 교수였고, “당신이 그것(정오표 목록)을 준비할 수 있도록”이라는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승만도 그 점을 모르지 않았다. 올리버가 어떤 답변을 보냈는지는 자료를 찾지 못하여 알 수 없으나, 그가 설령 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 정계 및 학계의 관계자들이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워스가 이 제안을 받았을 때 그보다 먼저 학위를 받은 ‘MK 한국학자’들은 이미 세상에 없었다. 1953년 가을 한국을 방문한 노블은 그해 말 미국으로

38) Clarence Norwood Weems (ed.), *Hulbert's History of Korea*, Volume I, p. ED1.

39) [https://db.history.go.kr/common/imageViewer.do?levelId=le\\_009\\_0530](https://db.history.go.kr/common/imageViewer.do?levelId=le_009_0530).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사망하였고, 어릴 때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던 맥쿤은 캘리포니아대학교 교수가 된 지 약 2년 만인 1948년 11월에 사망하였다. 맥쿤 부인은 살아 있었지만 1950년 석사 학위를 받은 후 박사 과정에 입학하지 않았고, 워스의 동생 벤저민도 석사 학위가 전부였다. 따라서 워스는 1956년 후반 살아 있으면서 박사 학위를 가진 유일한 'MK 한국학자'였다.<sup>40)</sup> 그러나 그저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학위를 늦게 받았다는 사실 외에는 손색이 없는 학자였다. 역사학 박사 학위를 가진 노블 및 맥쿤과는 달리 정치학 박사 학위를 가졌지만, 그는 정치학자라기보다는 19세기 말 한국의 정치사를 전공한 역사학자였다. 또한 한국에서 자란 것 외에도 해방 전 후 한국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한국 전문가였다.

이승만 내외는 워스가 험버트의 책을 맡게 된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앨버트다움출판사가 한국 정부에 도서 선주문 의사를 문의하자, 프란체스카는 올리버에게 워스의 한국사 지식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편집자로 적합하지 의심스럽다고 썼다.<sup>41)</sup> 그리고 올리버는 이승만 내외에게 보낸 답장에서 워스가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 『한국사』에 주석을 달기에 적합한 인물이지만, 그가 최근 50년에 관하여 어떻게 쓸지가 걱정이라고 썼다.<sup>42)</sup> 그들이 염려한 것은 그의 학자적 역량이 아니라 정치적 성향이었다. 워스는 이승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그는 중간파와 좌우 합작을 지지한 사람으로서 김규식을 지원하였고 여운형도 좋게 보았으며, 이승만과 대립 구도에 있던 서재필과 가깝게 지냈다.<sup>43)</sup> 결국 이승만 내외는 워스가 집필한

40) 선교사 후손이 아닌 평범한 미국인이면서 한국사를 전공한 사람으로 칼 바츠(Carl F. Bartz, 1921-1997)가 있다. 그는 하버드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은 후 1948년 캘리포니아대학교 박사 과정에 입학하여 맥쿤으로부터 짧은 가르침을 받았다. 그는 1952년 9월 「1860-1876년 한국의 고립 정책(The Korean Seclusion Policy, 1860-1876)」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학계에서 활동하지 않고 국무부에 소속된 외교 관료로 살았다. 1950년 4월 처음으로 내한하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일하는 한편 학위 논문을 위한 현지 조사를 수행하였고, 1967년 6월 다시 내한하여 주한미국대사관 문화담당관으로 복무하였다. 1969년에는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회장직을 맡기도 했다.

41) [https://db.history.go.kr/common/imageViewer.do?levelId=le\\_009\\_0860](https://db.history.go.kr/common/imageViewer.do?levelId=le_009_0860).

42) [https://db.history.go.kr/common/imageViewer.do?levelId=le\\_009\\_0900](https://db.history.go.kr/common/imageViewer.do?levelId=le_009_0900). 올리버는 워스가 학위 논문을 받은 곳을 하버드대학교로 잘못 알고 있었다.

43) 김구, 김규식, 여운형, 이승만, 서재필 등에 대한 워스의 인식과 평가는 김동선, 앞의 글, 223-229쪽을 참고할 것.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책을 주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sup>44)</sup>

이러한 배경이 있었지만 워스는 결국 『한국사』를 맡았고 헐버트의 원문에 상당한 분량의 부록을 추가하여 『헐버트의 한국사』를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1961년 8월 15일에 서문을 썼고 집필 작업에 4년 반 이상 걸렸다고 하니, 1956년 말이나 늦어도 1957년 초에는 집필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관심을 가진 미국인들이 그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미한재단, 아시아재단, 감리교선교위원회, 미국장로교해외선교위원회, 미국연합장로교에 큐메니컬선교관계위원회, 한국협회 등 미국의 6개 비영리 단체들이 직접 후원과 선주문 같은 방식으로 이 책의 생산과 홍보에 도움을 주었다.<sup>45)</sup> 또한 학문적으로는 다양한 나라의 학자들이 그가 집필한 부분을 읽고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그중 한국의 역사 및 문화와 관련하여 그를 도운 사람들을, 워스가 기술한 그대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고려의 역사와 예술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영국 버크셔의 제프리 콤포츠 씨.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한우근 교수.

도쿄도립대학교의 하타다 다카시 교수.

주한미국대사관의 문화 담당관인 그레고리 헨더슨 씨.

서울 국립박물관의 연구과장인 김원용 박사.

컬럼비아대학교 중국어일본어학과의 피터 리(이학수) 교수.

대한민국 문교부 장관과 성균관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이선근 박사.

캘리포니아대학교 사회교육원과 디아블로밸리대학교의 에블린 맥쿤 교수.

대한민국 참의원 의장, 문교부 장관, 연세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백낙준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유흥렬 교수.

워싱턴대학교 극동러시아연구원의 서두수 교수.

하버드대학교 극동언어학과의 에드워드 와그너 교수.

의회도서관 참고문헌부 동양학과의 한국 전문가인 키 양(양기백) 씨.

44) [https://db.history.go.kr/common/imageViewer.do?levelId=le\\_009\\_0930](https://db.history.go.kr/common/imageViewer.do?levelId=le_009_0930).

45) Clarence Norwood Weems (ed.), *Hulbert's History of Korea*, Volume I, pp. ED7-ED8.

대한민국 문교부 장관을 역임한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이병도 박사.<sup>46)</sup>

이와 더불어 워스는 “헨리 허버트의 원문에 대한 정오표는 최규남 전 대한민국 문교부 장관이 제안하였고, 고려대학교 유진오 총장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겸 박물관장인 이상백 박사가 지난 수년간 조연과 서지적 기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나를 지원하였다”고 덧붙였고, 컬럼비아대학교의 캐링턴 굿리치(L. Carrington Goodrich, 1894-1986)와 하버드대학교의 에드윈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 1910-1990) 등 중국사, 일본사, 동아시아사 연구자 7명의 이름도 수록하였다.<sup>47)</sup> 그러므로 『한국사』의 재출간 작업은 워스의 단독 작업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제안하고 미국의 비영리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한국 역사학자들을 비롯하여 국적(일본, 중국, 미국, 영국)과 전공이 다양한 학자들이 참여한 협동 과제였다.

『헨리 허버트의 한국사』는 헨리 허버트가 집필한 『한국사』 원문과 ‘편집자’ 워스가 집필한 부분(쪽수 앞에 ED 붙음)으로 나뉜다. 세부 장절을 제외한 대략적인 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2] 워스의 『헨리 허버트의 한국사』 전체 구성

제1권	편집자 서문	ED1-ED22쪽
	호머 베잘릴 헨리 허버트의 프로필	ED23-ED62쪽
	편집자 서문: 헨리 허버트의 『한국사』에 대한 전반적 비평	ED63-ED127쪽
	헨리 허버트의 원문 (고대 한국 1-13장, 중세 한국 1-13장, 근대 한국 1-9장)	1-409쪽
	헨리 허버트의 원문에 대한 편집자 주석	ED410-ED427쪽
	편집자가 제시한 한국의 주요 1차 자료	1쪽짜리 표
제2권	헨리 허버트의 원문 (근대 한국 1-27장 <sup>48)</sup> )	1-374쪽
	헨리 허버트의 일반 색인	375-390쪽
	헨리 허버트의 인명 색인	391-398쪽
	편집자의 역대 군주 색인	ED399-ED410쪽
	헨리 허버트의 원문에 대한 편집자 주석	ED411-ED422쪽
	편집자의 문헌 목록	ED423-ED456쪽

46) Clarence Norwood Weems (ed.), *Hulbert's History of Korea*, Volume I, pp. ED4-ED5.

47) Ibid., p. ED5. 선교사의 후손이 자신이 나고 자란 나라를 연구하는 학자가 된 것은 한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굿리치는 통주우 출신으로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중국사를 연구한 'MK 중국 학자'였고, 라이샤워는 도쿄에서 나고 자랐으며 하버드대학교에서 일본사를 전공한 'MK 일본 학자'였다.

웬스가 집필한 부분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5개 절로 이루어진 <편집자 서문>에서는 편집본의 구상, 편집본의 내용과 생산에 도움을 준 사람들, 헐버트의 『한국사』 집필 과정, 편집본의 집필 과정을 다루었다. 여기에서 그는 연재물과 단행본을 꼼꼼하게 비교하여 헐버트가 1899년 또는 1900년에 단행본을 완성한 후 『코리아 리뷰』에 연재하였음을 밝혀내었다. 10개 절로 이루어진 <호머 베잘릴 헐버트의 프로필>에서는 헐버트의 삶을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기적으로 서술하면서, 헐버트를 “대한민국이 탄생과 분투의 기회를 얻는 데 공헌”한 “한국의 친구이자 국제 정의의 친구”였다고 높이 평가하였다.<sup>49)</sup>

『헐버트의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4절로 이루어진 <편집자 서문>이라고 할 수 있다. 웬스는 먼저 『한국사』의 강점으로 고대부터 최근까지 전 시대를 포괄한 것, 학문적 태도로 제한된 자료에 접근한 것, 한국인들을 중국인들과 구별되는 중요한 집단으로 본 것을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사』의 조직과 내용에 대해서는 서양식 시대 구분이 적절하지 않고 한 장에서 서로 관련 없는 사건들이 무분별하게 나열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후자를 해결해 보고자 총 63개 장에 제목을 달았지만 만족하지 못했다.<sup>50)</sup> 세 번째로 그는 고대사 부분과 관련하여 헐버트의 관점에 이견을 제시하였고, 헐버트가 고대사 및 중세사 서술의 자료로 활용하였다는 『동사강요』에 관하여도 언급하였다. 일단 이 책에 대한 헐버트의 간략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현 세기 초에 4개 저술을 한데 모아 비교하여 『동사강요』가 편찬되었다. 『동사강요』의 기초가 된 4개 역사책은 『동국통감』, 『동사찬요』, 『동사회강』, 『동사보유』

48) 1장과 2장 사이에 1-A장이 있으므로 총 28개 장이다. 헐버트의 연재물과 단행본 모두에 11장으로 잘못 쓰여 있었던 것을 웬스가 1-A장으로 수정하였다.

49) Clarence Norwood Weems (ed.), *Hulbert's History of Korea*, Volume I, p. ED62.

50) 헐버트의 원문은 장 제목이 없이 장 번호(제1장)와 핵심어(단군, 그의 선조, 그의 기원 등)를 제시한 형태였다. 웬스는 장 내용을 보여 주는 제목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단군,’ ‘기자부터 기준까지,’ ‘위만과 그의 나라’ 같은 제목을 달았으나, 장 내용을 아우르는 적절한 제목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년부터 ○○○○년까지’ 식의 무의미한 제목을 달 수밖에 없었다. 전자와 후자의 비율은 대략 반반이다.

였다.<sup>51)</sup>

웬스는 문헌 조사를 통하여 위 4개 역사책을 찾아 소개하였다. 또한 프랑스의 초기 한국학자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 1865-1937)의 역작『한국서지(Bibliographie coréenne)』에서『동사강요』에 대한 다음 내용도 발견하였다.

1868년. 東史綱要, Tong sǎ kang yo, 한국 연대기의 요약. 전9권, 8절판, 필사본. 단군부터 공양왕까지의 역사. 나는 이 저술의 2개 판본을 보았다. 하나에는 “창동(倉洞)에서 갑신(甲申)(1884년?)에 쓰였다”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갑신에 중섭(重燮)이 쓴 발문이 있었다. 이 인물의 아버지는 정사(丁巳)와 무오(戊午) 즉, 1857-1858년에 이 책을 썼다.<sup>52)</sup>

쿠랑의 위 기록은『동사강요』의 존재를 확실히 알려준다. 다만 저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이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책에 저자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857-1858년 어떤 사람이 이 책을 편찬하였고, 그의 아들인 ○중섭(○重燮)이 1884년 서울 창동에서 간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문제는 헐버트가『한국사』를 집필한 후 약 60년 사이에 이 책이 소실되었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되었다는 것이다. 웬스는 서울의 학자들을 통해서도 미국 의회도서관에서도『동사강요』를 구하거나 그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고, 결국 헐버트가 참고한 자료는『동사강요』가 아니라『東史綱目』일지도 모른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sup>53)</sup>

이러한 가운데 최재건이 영국도서관(British Library)에서 발견한 소장본

51) Homer B. Hulbert, “The History of Korea,” *The Korea Review*. Volume I, p. 30.

52) Maurice Courant, *Bibliographie coréenne*, Volume 2, Paris: E. Leroux, 1894, pp. 337-338.

53) Clarence Norwood Weems (ed.), *Hulbert's History of Korea*, Volume I, pp. ED75-ED76. 이 때문인지『동사강요』라는 책이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알 수 없으나,『한국사』의 번역본인『한국사, 드라마가 되다』(호머 헐버트 저, 마도경·문희경 옮김, 리베르, 2009)의 서문에도『동사강요』가『동사강목』으로 바뀌어 있다.

을 입수하여 『동사강요』의 존재를 알리고 내용도 소개한 소요한의 논문(2016)은 매우 유의미하다. 그러나 저자를 밝혀내지 못한 것, 기존 자료를 오독하여 『동사강요』가 중섭이 쓴 버전과 중섭의 아버지가 쓴 버전이 있다고 한 것은 아쉽다.<sup>54)</sup> 필자는 『月巖集』, 『烏城世稿』, 『倚松軒遺稿』 등 화순 최씨 인물들의 글을 간행한 최중섭(崔重燮)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으나, 아직 조사 단계에 있으므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헐버트가 1901년이 되기 전 거의 대부분을 집필하고 1901-1904년 『코리아 리뷰』에 연재하고 1905년 단행본으로 낸 『한국사』는, 그가 한국에서 사망한 지 수년 후인 1950년대 후반 한국 정부에 의하여 재출간이 기획되었다. 워스는 이 일에 책임자로 채택되어 『한국사』의 집필부터 간행에 이르는 과정을 추적하고, 헐버트라는 인물에 대한 전기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한국 인들과 여러 학자들의 지원을 받아 『한국사』의 장점과 약점을 분석하였다. 이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고마운 외국인을 기념하며 일종의 정치적 효과를 기대한 사업이었다고 하겠다. 한편 서구 한국학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 연구라는 것을 처음 제창한 ‘선교사 겸 학자’ 세대의 업적을 다음 세대인 ‘MK 한국학자’와 후대 연구자들이 계승 및 발전시킨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 4. 맺음말

본 논문은 한국에서 성장한 미국인 선교사 후손으로서 한국학자가 된 워스의 생애와 그의 대표 업적인 『헐버트의 한국사』를 검토하였다. 워스의 생애와 관련해서는 그가 맥클린보다 먼저 한국사 연구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중단하였다는 점, 하버드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한 것은 사실이나 최종적으로는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박사

54) 소요한,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 선교사의 한국사 연구: 새로 발굴된 동사강요(東史綱要)를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30, 2016, 107쪽.

학위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가 연구 주제를 일본 제국주의에서 한국의 개혁가들에게로 관심을 돌렸다는 점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헨리 허버트의 한국사』와 관련해서는 이 책을 내겠다는 발상이 한국 정부로부터 나온 점, 이승만은 좋아하지 않았지만 워스가 책임자로 채택된 점 등이 흥미로운 발견이었다. 무엇보다도 『헨리 허버트의 한국사』의 출간은 19세기 말의 '선교사 겸 학자'(미국 한국학 1세대)였던 헨리 허버트의 연구를 20세기 후반 'MK 한국학자'(미국 한국학 2세대) 워스가 계승 및 발전시킨 사례로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1962년 미국과 영국에서 출간된 『헨리 허버트의 한국사』는 워스의 노력과 여러 사람들의 학문적 및 재정적 도움으로 완성을 능가하는 책이 되었다. 이 책은 1969년 출간된 하타다 다카시(旗田巍, 1908-1994)의 『朝鮮史』(1951) 번역본과 함께,<sup>55)</sup> 서양어로 쓰인 한국사 개설서이자 대학생용 교재로 20세기 후반의 상당 기간 동안 기능하였다.<sup>56)</sup>

55) Warren W. Smith, Jr. and Benjamin H. Hazard (trans. and ed.), *A History of Korea* (by Takashi Hatada), Santa Barbara, California: ABC-Clio, 1969.

56) 장재용 · Rachel Min Park, 「동아시아학 속의 한국학: 미국 UC 버클리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7, 2022, 277쪽.

## ■ 참고문헌

### 1. 사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현대사료DB.

『코리아 리뷰(The Korea Review)』(1901-1906).

『코리안 리포지터리(The Korean Repository)』(1892, 1895-1898).

Clarence N. Weems, Jr., "The Korean Reform and Independence Movement (1881-1898)," PhD. diss., Columbia University, 1954.

Clarence Norwood Weems (ed.), *Hulbert's History of Korea*, 2 Vol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and New York: Hilary House Publishers, 1962.

Homer B. Hulbert, 『Echoes of the Orient: A Memoir of Life in the Far East』, 선인, 2000.

### 2. 단행본

내한선교사사건 편찬위원회 편, 『내한선교사사건』,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2.

호머 힐버트 저, 마도경 · 문희경 옮김, 『한국사, 드라마가 되다』(전2권), 리베르, 2009.

Benjamin B. Weems, *Reform, Rebellion and the Heavenly Way*. Tucson, Arizona: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64.

Harold Joyce Noble, *Embassy at War, Edited with an Introduction by Frank Baldwin*, Seattle &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5.

James C. McNaughton, *Nisei Linguists: Japanese Americans in the 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during World War II*,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2006.

Robert S. Kim, *Project Eagle: The American Christians of North Korea in World War II*. Lincoln, Nebraska: Potomac Books, 2017.

### 3. 논문

김동선, 「미군정기 미국 선교사 2세와 한국 정치 세력의 형성: 윌리엄스(George Zur Williams)와 웨임스(Clarence N. Weems, Jr.)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1, 2016.

김서연, 「조지 맥쿤(George M. McCune)의 생애와 한국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소요한, 「힐버트(Homer Bezaleel Hulbert) 선교사의 한국사 연구: 새로 발굴된 동사강요(東史綱要)를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30, 2016.

이영미, 「영문 잡지 『코리아 리뷰(The Korea Review)』(1901-1906) 연구」, 『역사민속학』 60, 2021.

\_\_\_\_\_, 「한국을 연구한 초기 개신교 '선교사 겸 학자들」, 『한국기독교와 역사』 54, 2021.

\_\_\_\_\_, 「미국 최초의 한국사 전공자 해롤드 노블(Harold J. Noble, 1903-1953)의 생애와 한국 연구」, 『한국학연구』 64, 2022.

장재용, 「근대 서양인의 저술에 나타난 한국사 인식」,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장재용 · Rachel Min Park, 「동아시아학 속의 한국학: 미국 UC 버클리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7, 2022.

## Korean Studies by American Missionary Kids

Focusing on Clarence N. Weems, Jr. and *Hulbert's History of Korea* (1962)

Lee Yeong-Mi\*

This paper examines the life and works of Clarence N. Weems, Jr. (1907-1996), who grew up in Korea and became a Koreanologist as a child of American missionaries. He was the second son of Southern Methodist missionaries Clarence N. Weems (1875-1952) and Nancy A. Weems (1879-1944). Born in the United States and raised in Korea, he earned bachelor's and master's degrees in history from Vanderbilt University and then studied at Harvard University. He worked as a Korea expert for the U.S.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India, China, and Korea from 1942 to 1947, and in 1954, he received a doctorate in political science from Columbia University for his PhD dissertation titled "The Korean Reform and Independence Movement (1881-1898)." Also, he wrote *Hulbert's History of Korea* (1962), which was an expanded edition of *The History of Korea* (1905), written by Homer B. Hulbert (1863-1949).

As one of the missionary children who wanted to study Korea in the early days based on his love for Korea, Weems became one of the "MK (missionary kids) Koreanologists" who refused to accept the typical Western view of Korea and revealed the dynamism, identity, and uniqueness of Korean people. In addition, he published *Hulbert's History of Korea* at the sugges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with the academic support of historians from several countries including Korea. It is one of the notable examples of the works done

---

\* 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Korean Studies, Inha University

by “missionary-scholars” in the late 19th century being inherited and developed by “MK Koreanologists” in the mid to late 20th century.

**Key words** : Clarence N. Weems, Jr., missionary kids, MK (missionary kids) Koreanologist, Homer B. Hulbert, *Hulbert's History of Korea*, missionary-scholar